

## 종합 토론

- ◆ 일 시 : 1995 년 10월 19일 (목)
- ◆ 장 소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 ◆ 참석자 : 박갑수(서울대), 김광해(서울대), 권재일(서울대), 이성영(한국교육개발원), 최영환(인천교대), 심영택(한국교육개발원)-이상 발표자  
고영근(서울대), 노명완(고려대), 박영목(홍익대), 손영애(인하대), 이종덕(서울과학교), 이은희(전북산업대학)-이상 초청 토론자

김광해 : 발표와 관련해서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선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까요. 언어 영역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초, 중, 고 교과서의 내용 체계 배열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도 정도 차를 두어 나선형으로 배열하자는 의견으로 일치하고 있고, 방법면에 있어서는 저 혼자만 했지만 탐구 방법을 채택하자는 것이 나왔습니다.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언어 영역 뿐만 아니라 국어교육 전반에서 의견을 조정해야 할 부분인데, 언어 영역이 가르치는 데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 영역이냐 아니면 언어 교육 신장을 위한 보조 교육으로서 가치가 있는 영역이냐는 문제에서는 미묘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영 : 저는 발표문을 종합해 보고 나서 그 문제점을 3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줄곧 제기되었던 문제이지만 영역 구분의 문제입니다. 저는 발표문에서 기존의 5차나 6차의 세 영역을 인정하자고 하였고 토론을 하신 노명완 선생님께서서는 하나로 합치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이 토론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가능하면 영역 통합을 인정하지 않고 세 영역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각 교과마다 독자적인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 중심으로 끌려가기만 한다면 교과 사이에 빈공간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또 일관된 축으로 다 설명해 가려는 그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 비는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가 있었고요. 하나로 할 수 있다면 일관된 축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언어 사용 기능을 중심으로 했을 때 모든 내용을 체계화 했을 때 빠지는 부분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학 영역에서 문학 영역의 목표를 크게 내세울 수 있다면 감상 영역과 그 이외의 가치 문제로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데 언어 영역도 마찬가지로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가치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세 영역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언어 지식 영역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왜 문법 영역이 중요한가 하면 가장 많이 가르치는 부분이 문법이고 언어 기능 영역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문법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문제로 왜 텍스트를 다루지 않고 문장으로 한정을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 영역을 인정한다면 담화, 텍스트 방면의

연구 결과들은 어디서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세 영역을 인정한다면 언어 영역에서보다는 기능 영역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고영근 : 아침부터 발표문을 읽으면서 우리나라도 국어교육이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바로 섰구나 해서 뿌듯합니다. 1980년대 초에 통일 문법을 저술할 때 국어교육에 대한 참고문헌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우리 문법 교육도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구나 하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언어 구조 중심의 문법 교과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문법 교과서가 기능을 전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연습 문제 같은 데서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언어 기능을 중시하는 요즘 심의되고 있는 문법 교과서는 언어 구조적인 측면이 너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가 결여되어 있으면 기능적인 측면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권재일 교수가 국어학적 관점이라고 했는데 어학적 관점이라는 말이 더 나올 듯합니다. 국어학적 관점이라는 말은 너무 전문적인 느낌을 줍니다. 어학적 관점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느낌을 주어 더 낫습니다. 문법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급 정교사들이 하는 말이 학생들이 도대체 문법에 대해 흥미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수학능력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토론을 보니까 언어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기능면을 신장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에 진정서를 내서라도 시험을 추진하도록 합시다. 제작년에 박갑수 선생님과 북경에서 남북한 어학자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북한은 국민

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문법 교육을 계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즘의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해방 후의 1948년 교재를 보니까 국민학교 1학년부터 글자부터 시작해서 문법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언어에 대한 태도가 우리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언어가 인간과 사회, 자연을 개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혁명과 건설에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김동찬씨가 쓴 논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어는 규범이다.' 규범이라는 말은 부단히 다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태도를 반드시 본받을 필요가 없지만 참고를 하면 여러 가지로 국어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명완 교수가 말씀한 토론문의 30페이지를 보면 '언어학이 텍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언어 영역에서도 문장보다는 텍스트를 중시하자, 이 방면에 연구가 부족하지만 지금은 방향을 잡을 시기이며, 언어 영역과 언어 기능 영역, 문학 영역까지 하나로 하여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영역 구분을 시도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4, 5년 전부터 텍스트 언어학회를 발족하여 텍스트 언어학회지 2집까지 냈는데요. 독일에서는 1970년대부터 텍스트 언어학 연구의 붐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해마다 수많은 책과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독일어교육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텍스트 언어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언어교육 특히 문법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명완 교수가 텍스트를 도입하면 언어 지식, 언어 기능, 문학 모두 통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언어기능 측면이 텍스트 분석과 연관됩니다. 기능 측면에 텍스트 분석의 결과를 잘 연결시키

면 언어지식과 문학 영역을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 저는 대우학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텍스트 이론』이라는 책을 쓰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 쓰고 있습니다. 그때 논제 구상에서 텍스트 분석과 그 이론은 언어와 문학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언어문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수 있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오래 전에 제안을 했던 얘기입니다. 1966년까지는 중학교의 독자적인 문법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 이후 고등학교에만 남고 없어졌는데 중학교에서도 문법 교과서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갑수 : 아까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에 별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 말한 합의점에 거의 동의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언어의 기능 교육이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영환 선생 같은 분은 구체적으로 언어 지식 영역을 따로 독립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언어 지식 영역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평가가 뒤따라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에서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능능력시험이라든가 대학 본고사에 반영이 되어야 그 교육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반 언어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인들도 발음같은 것도 엉망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올바른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반영이 된다면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재미가 없더라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또하나, 언어의 기능 교육에서 다루지 못할 언어 지식 체계는 단계별로 고등학

면 언어지식과 문학 영역을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 저는 대우학술재단의 지원을 받아 『텍스트 이론』이라는 책을 쓰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못 쓰고 있습니다. 그때 논제 구상에서 텍스트 분석과 그 이론은 언어와 문학을 연결시키는 새로운 언어문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수 있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의 과제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오래 전에 제안을 했던 얘기입니다. 1966년까지는 중학교의 독자적인 문법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 이후 고등학교에만 남고 없어졌는데 중학교에서도 문법 교과서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갑수 : 아까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에 별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 말한 합의점에 거의 동의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언어의 기능 교육이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심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영환 선생 같은 분은 구체적으로 언어 지식 영역을 따로 독립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언어 지식 영역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평가가 뒤따라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에서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학능력시험이라든가 대학 본고사에 반영이 되어야 그 교육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일반 언어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방송인들도 발음같은 것도 엉망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올바른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반영이 된다면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재미가 없더라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또하나, 언어의 기능 교육에서 다루지 못할 언어 지식 체계는 단계별로 고등학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이라고 하기도 했다가 ‘언어 지식’이라고 하기도 했다가 우왕좌왕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언어 지식 영역에 관련된 문제의 복잡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다른 말을 만들어 내야겠다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언어’, ‘우리말’ 등의 말을 만들었다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금방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법’에서 확대가 되는 좋은 이름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그 동안의 고민의 초점이고 우리가 연구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연구를 진행한 것이 크게 3가지일 것입니다. ‘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교수 학습할 것인가’가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루는 부분에 가서는 완전한 의견 일치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온 결과물을 보면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화되지 못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결국에 가서는 내용 추출에서는 비슷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기능 쪽에서 접근하다 보니 누락되는 부분들, 기능 신장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들 이런 부분이 남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두 개의 관점을 우리는 다 보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실제에 반영될 수 있는지 좀더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영근 : 김선생님의 첫번째 답변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4차 문법교과서는 국어학의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므로 그런 의미로 ‘국어교본’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문법 교과서는 품사론, 문장론, 형태론, 통사론 같은 것을 다룬 좁은 의미의 전통적인 문법이 아니라 어휘부, 문자, 구두점, 맞춤법까지 다 포괄하므로 ‘문법’이라는 말이 듣기도 좋고 가장 무난합니다. 그러나 교과과정 해설에서는

‘언어 영역’이라는 말을 해도 좋습니다. 외국에서도 그냥 ‘문법’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한용 : 언어 지식 영역을 체계화한다는 것은 내용요소들을 새롭게 위계질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전체 구성에서 보면 권재일과 최영환 두 분의 발표가 내용과 관련이 있을 텐데 두 분은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내용 추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추출에 머물러 있고 체계화가 별로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체계화란 어떤 것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신다면 전체를 엮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상익 : 제가 질문 겸 답변 겸 소감 겸 한마디 하겠습니다. 큰 제목이 ‘언어 지식 영역의 체계화’이기 때문에 청중들의 관심은 권재일, 최영환 교수의 발표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의 발표문도 관련이 있지만 왜 가르쳐야 하느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는 일단은 두번째 문제입니다. 우한용 교수와는 달리 나는 권 교수의 발표문에 완전히 이론을 제시했고 그 이론에 따른 체계화까지 보여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또 그 방법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박영목 교수가 다섯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이론에 따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체계화에 대한 오늘의 논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권재일 : 국어교육에 대해 잘 모르니 깊이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체계화를 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 아직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영목 교수도 다섯 가지 문제를 설정했는데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박영목 교수께 체계화를 마무리하게 맡기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박영목 : 답을 듣기 위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세미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상기하게 됩니다. 얼마되지 않은 시간 내에 다만 국어교육 연구에서의 문제가 뭔지 오늘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었으니, 정교하게 연구를 추진하자는 생각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명완 : 상당히 원론적으로는 합의가 되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원론적으로 동의가 되었다는 생각이 싹 가셔버릴 정도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고 이론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도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기한 질문, 문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구요. 권재일 선생이 내용을 뽑아 놓은 것은 그것이 일관적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미시적인 것과 거시적인 것이 다 섞여 있거든요. 또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탐구학습의 방법이 나왔지만 그 외에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법지식을 개념적 지식이라고 했을 때 브루너가 얘기한 탐구방법도 있지만 귀납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탐구는 가설을 먼저 세우고 검증하는 연역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할 때는 귀납을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따라서 개념을 가르칠 때는 귀납적인 것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모임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보다는 문제 제기가 상당히 풍성했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았으면 합니다.

김광해 : 문제제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건져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남은 문제점은 개선해야 한다는 선언 말고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직접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데에 실질적인 노력을 투입해야 하겠습니다.

박갑수 : 윤희원 선생께서 오늘 발표를 보시고 어떤 소감을 가지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윤희원 : 항상 교육에 대한 문제를 따질 때는 어렵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교과서를 만들 때도 국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부터 나오면 어렵습니다. 연구를 하는 시점에서 교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전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제한점을 두고 하면 결실을 볼 수 있는 논의였다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은 교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권 선생님이 제시한 교육을 위한 이론의 한 체계가 국어학 내적인 체계와는 맞지 않을 수 있고, 가르치기 위한 담화의 구조를 밝히는 것과 국어의 본질적인 구조를 밝히기 위한 담화는 그 접근 방법과 결론을 달리합니다. 교육이라는 현실이 연구에 주는 한계와 연구이기 때문에 원론에 천착해야 하고 이론적인 체계를 세워야 하는 측면, 그리고 즉각적인 현실이나 현상 등, 여러 가지가 동시에 연구에 제한을 준다고 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답해 하셨는데 오히려 일치해 버릴까 봐 겁이 납니다. 한편에서는 현실에 반영되고 한편에서는 원론을 곱씹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해 : 학술발표회에 여러 번 참석해 봤지만 오늘처럼 열심히 진지하게 토론하시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종합 토론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